

## [ 오피니언 ]

## 光日春秋

이서항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부상 문제가 최근 또다시 국내외적으로 언론매체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인 자신들에게 의해 ‘굴기’(崛興)라고 표현되는 중국의 부상 (rise of China)은 21세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국제정치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이 죽(竹)의 장막을 걷어내고 개혁·개방에 나선지 꼭 30년이 되는 해이자 세계 모든 사람들의 눈이 쏠리는 베이징올림픽이 열리는 해다.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주목과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렇다면 왜 중국의 부상이 국제정치의 중요한 핵심이 되면서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일까? 크게 3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타난 중국의 엄청난 변화다. 우선 중국의 국민총생산(GDP)은 지난 30년간 거의 매년 10% 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5배로 늘어났으며 오늘날의 총 경제규모는 세계 3위를 차

하고 있다. 물론 1인당 국민소득은 13억이라는 많은 인구로 인해 아직도 세계의 하위권(100위권)을 맴돌고 있지만 전체적인 경제총량은 미국과 일본을 뛰어넘는 강대국 수준인 것이다.

둘째,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또한

해 17% 이상 늘린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중국 국방당국은 증대된 국방비가 주로 군부역의 관리 및 청우개선에 집중되고 개선된 군사력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보호를 위해 사용될 뿐, 다른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주변국의 시선은 이와 다른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동북아의 많은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의 실제 국방비 지출이 정부의 공식발표 수치보다 2~3배 높으며 지역 국방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경제·군사적 측면에서 이루

무려 45배나 늘었다. 현재 두 나라사이의 항공기 운항편수가 주 평균 약 830회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인적 교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적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 중국의 급격하고도 무서운 부상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결국 아래와 같은 2가지 질문으로 귀결된다. 즉, 중국의 부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와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내부적으로 도농간 격차, 지역 불균형, 정치적 민주성의 한계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엔은 지난 5년간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를 미국보다 1% 앞선 약 17%로 산정했는데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의 놀라운 부상이라는 국제정치의 엄연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취할 선택은 과연 무엇인가? 한마디로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위험요인을 줄이면서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것 밖에는 없을 것 같다.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중국의 무서운 부상

확대된 경제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는 물론 세계 각 곳의 자원과 원자재를 대상으로 거의 무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수년동안 에너지 및 지원확보를 위해 자원부국으로 알려진 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의 지역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외교를 펼쳐왔으며 이러한 공세적인 접근은 이미 국제사회에 경계음을 울린 바 있다.

셋째, 군비지출과 이와 연계된 군사력 증강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10여년간 거의 매년 두자리수 이상의 비율로 국방비를 늘려왔으며 올해 국방비도 작년에 비

어진 중국의 급격한 부상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오늘 날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총 무역거래량은 1년에 약 1천450억 달러로 중국은 제1위 교역상국이자 제1위 수출대상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나라 사이의 교역규모는 수교가 이루어진 14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약 23배가 늘어난 수치이다.

무역규모의 확대와 함께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사회·문화·인적 교류도 놀랄만한 변화를 이룬 것이 사실이다. 1992년 수교 당시 불과 13만명에 불과했던 양국간 상호방문자는 작년에 거의 600만명에 달해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20년 전 일이다. 한국에 있는 친지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야구를 좋아하는 아들에게 선물을 하려 하는데 미국에서 제일 좋은 야구 장갑을 사서 보내달라”는 것이다.

백화점에서 최고급품의 야구장갑을 주문했더니 직원이 꺼내준 것은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였다. 하는 수 없이 짚이 한 단계 낮은 ‘메이드 인 U.S.A.’를 사서 보냈다.

처음 미국에 온 35년 전에는 미국 백화점들의 거의 모든 물건들이 미국이나 독일 등 유럽제품들이었다. 그 이후 점점 타국의 제품들이 많아졌는데 진열대

르고, 각목 휙두르며, 회사 기물을 부수며 시위하는 근로자들의 모습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에까지 전파를 타고 보도됐다.

물론 이곳 노동계에서도 시위는 많다. 그러나 자기 회사가 망할 정도로 물지각한 막판 행동은 하지 않는다. 또 폭력이나 기물 파괴와 같은 불법 행위의 경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앞뒤 이치를 따지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만 행동해서야 되겠는가.

2006년도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

## 메이드 인 코리아

위에 점점 증가하는 한국제품을 보는 이 곳 동포들의 마음은 대단히 흐뭇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제품이 주종을 이룬 가운데 ‘메이드 인 코리아’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제품에 비해 값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품질 면에서는 월등해 미국인에게도 인기였다. 당시 고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메이드 인 U.S.A.’에 신을 놓치던 것과 대조되는 아이러니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판을 치기 시작하고 한국제품들은 진열대에서 서서히 사라져갔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 빼앗기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에 고국에서는 머리에 땀

국 제조업 노동비 증가액이 세계 1위라고 한다. 이는 국가 경쟁력에서 뒤쳐질 우려가 있다.

지금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미국 백화점들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전자제품들인데 이것도 끊임없이 맹주격을 해오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언제 그 자리를 빼앗길지 모를 위태한 상황이다.

최근 취임한 어느 노조의 대표자가 국가의 장래를 위해 새 정부의 뜻에 맞춰 무분별한 노동운동은 자제해야 된다는 소식은 오랫만에 맛보는 신선한 청량제였다. 회사 층에서도 화답해야 한다. 회사가 잘 되면 노동자들과 이익을 골고루 나눠야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판을 치기 시작하고 한국제품들은 진열대에서 서서히 사라져갔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 빼앗기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에 고국에서는 머리에 땀

## 나이 든 교사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버려야

며칠 전 버스 안에서 한 아이의 엄마가 이제 막 학교에 들어간 듯한 아이에게 묻는 말을 들었다. 그 엄마는 아이에게 “이번에 너희 선생님 남자니 여자니?, 짚어 나이 들었어?”라고 물었다. 아이의 답임 선생님에 대해 물은 적도 있다.

가족 중에서 나이 드신 교사는 있는 필자로서는 옆에서 그런 말을 듣기가 거북했다. 학부모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이 먹은 교사들은 아이를 가르칠 자격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그분들의 교육 경험, 연륜, 신뢰는 다 뭐란 말인가?

자기 자녀가 짚고 유능하고 생기勃勃한 정열과 꿈과 평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야 이해 못하는 바는 아

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 속에는 나이 든 교사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거부감이 배어 있다.

사실 해마다 3월 반 배정이 끝나고 나면 ‘답임이 너무 늙었다’며 교장실에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학부모들도 상당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물론 짚은 교사들은 여유로모 생기발랄하고 당당하고 컴퓨터 세대라 아이들과 코드도 잘 맞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알고 있는 교육은 ‘교과 수업’이 전부가 아니다. 그분들은 진정한 교육적 가치와 인성을 중시하는 참 교육의 증인들이다. 나이 드신 교사들을 무시하거나 험대하는 학부모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런 생각을 버리기 바란다.

▲노정원·광주시 북구 누문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 기고



신현주

새 정부의 최대 핵심은 ‘경제 살리기’이다. 이에 발 맞춰 한국전력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전력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제도를 시행해 왔다.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간선 설비를 보편적 방법으로 제공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전기공급자인 한전이 전액 부담하고, 사업시행자 요청에 의해 지중선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요청자(사업자)와 전기공급자인 한전이 절반씩 부담해 단지 조성 원가 및 분양가 경감을 통한 기업경쟁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타 단지와의 공사비부담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산업단지 지중표준공사비 50% 적용은 지원의 합리적 배분에 근거한 수의자 부담 원칙이다.

사실 경제적 논리로만 따진다면 개발 사업자가 지중화 공사를 원할 경우 가공과 지중선으로 공사비의 차액은 수의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경제성과 수익성

## 전력 공사비 부담 원칙 필요한 이유

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전에서는 대규모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는 전력사업의 특성상 투자재원의 효과적인 조달을 통해 저렴한 저금으로 전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기를 새로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 설치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및 수요증가를 고려한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는 표준공사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기건설설비가 지중선으로 시설된 주택단지, 산업단지의 경우 개별 전기 사용신청시 지중표준공사비를 부담하고 있다. 지중선으로 설치한 경우 가공으로 설치시 보다 6배나 더 많이 소요된 주가 투자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일부 고객의 혜택을 위해 전국민이 부담을 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전기요금과 표준공사비 인상 요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전은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바탕 위에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고객 부담공사비 적용은 전기사업법에 의거 전기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

에 치중하지만 공기업은 공익성을 우선시 한다. 효율성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기건설 지중화 공사비의 절반을 부담해 온 것이다.

한국전력 밸류 이후 현재까지 26년 간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단 5.5%에 그치고 있다. 같은 기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206.7%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인하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여러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계 최저 수준의 저렴한 전기요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한전이 자체적인 비용 절감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전은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바탕 위에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한전은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바탕 위에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고객 부담공사비 적용은 전기사업법에 의거 전기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

## 비위생적 페트병 음식점 물병 사용 “기겁”

식당에 가면 예사로 페트병에 물을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손님들에게 내준다. 무심코 사용하는 페트병이 세균의 온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얼마 전 한 시민단체가 공식적으로 페트병 수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 이상이 페트병을 물병으로 재사용하고 있고, 식당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페트병에서는 조사 대상 중 절반이 넘게 대장균과 일반 세균이 나오는 것이다.

이처럼 페트병에 대장균이 쉽게 번식하는

이유는 병주동이 좁고 그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대부분 물체에 많은 흙이 둉게 쪘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불침이라 좀 낫지만 수온이 높은 여름철은 하천의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니 새삼 경각심이 든다.

심지어 미국의 한 방송에서는 빈 페트병에서 보통 수영장의 20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된 적 있다고 방송했다. 따라서 보건 당국에서는 대부분의 식당에서 사용하는 페트병의 사용중지 홍보와 안전지침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최남이·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 無等鼓

각 지역마다 봄 꽃을 주제로 한 다양 한 축제가 열리고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달라진 것 중 하나가 시·군별 특색을 살린 축제가 늘어났다는 점일 것이다. 갯벌이 많은 전남 서남해안 지역에서는 머드축제나 젓갈축제 등 갯벌과 바다를 활용해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축제로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전남 서남부 해안의 갯벌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삼이니 해안가에 기本事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환경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다. 관광객들을 갯벌과 바다를 출마하는 것이 고작이다.

정부가 오래 전 체험원과 활동범위를 제한하고 휴식년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갯벌활동에 관한 관리지침을 마련했으나 이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인원 제한은 커녕 관광객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수산물 제작량 규제도 없다. 새기 조개까지 짜을 데에서 일부 갯벌은 바지

란기에는 성인이 밟고 지나가기만 해도 어린 생물이 죽어버리는 주제 있다.

갯벌은 흔히 자연의 정화조로 불린다. 학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전국적으로 10조원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갯벌을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무작정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갯벌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축제를 열어야 한다. 지역별로 대표 축제를 정해